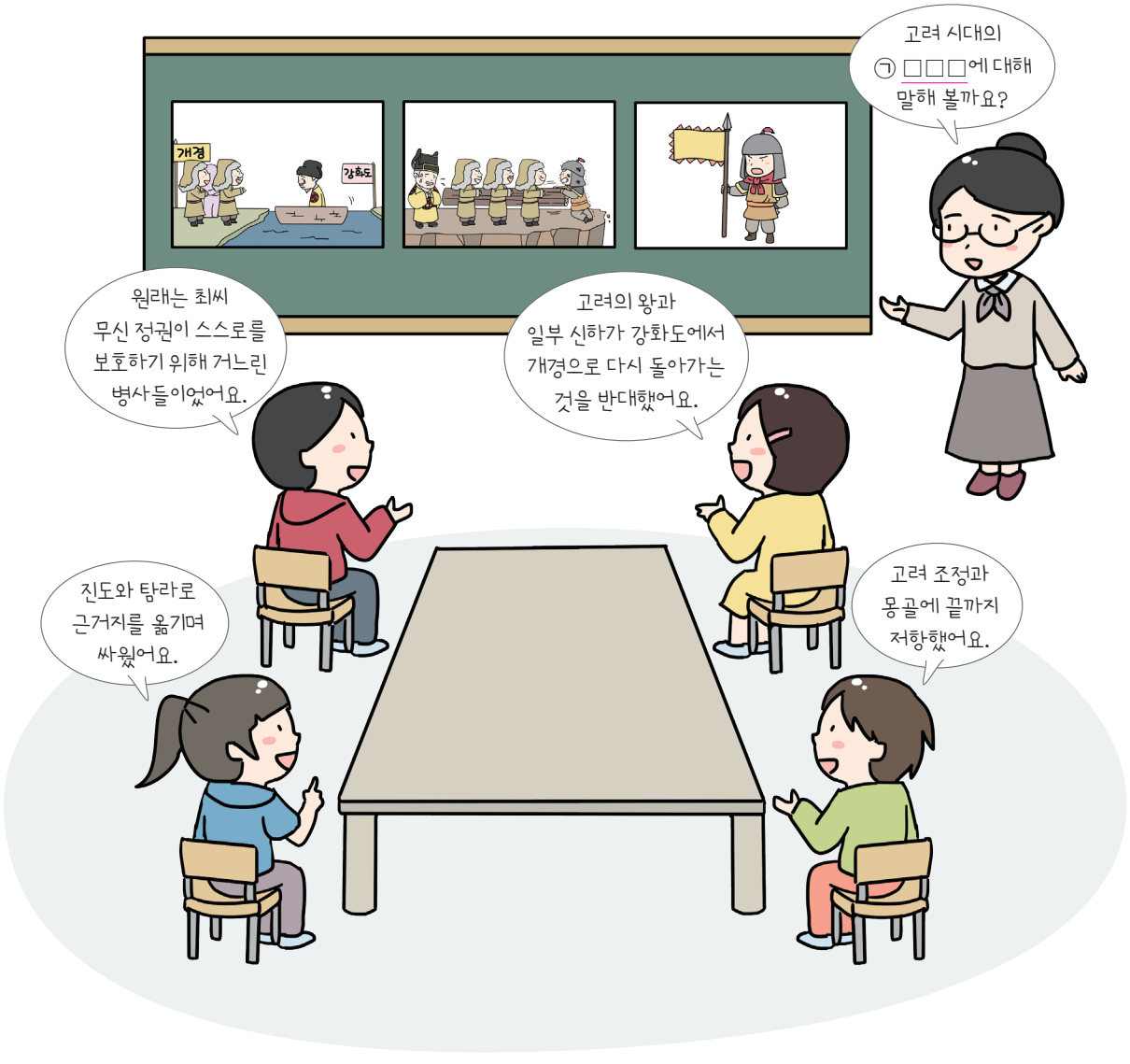
몽골의 침입

10

월 일

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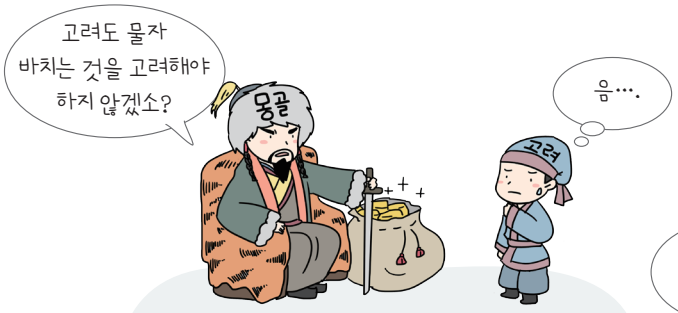
다음 그림의 ㉠에 들어갈 말을 초성을 참고하여 쓰세요.



ㅅ ㅂ ㅊ

탐구력

몽골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볼까요?



통일을 이룬 *몽골은 고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했어요.

*몽골 : 북쪽의 유목 민족으로 칭기즈 칸이 부족을 통일한 후 세력이 강해졌다.

고려는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어요. 군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싸운 덕분이에요.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1차 침입이 시작됐어요. 고려는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에 맞섰어요.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맞서려고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육지와 가깝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옮겨 올 수 있었고 세금이나 각종 물건을 옮겨 오기에도 좋았습니다. 또 육지와 강화도 사이의 물살은 무척 빠르고 갯벌도 넓어서 적군이 침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바다에서 먼 곳에서 발전한 나라여서 배를 만드는 일이나 바다에서 싸우는 일에 약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문화재도 이때 불타 버렸어요.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여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실패했어요.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았지만,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어요.

삼별초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느린 사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훗날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군대로 편성되어 마지막까지 몽골과 싸웠습니다. 삼별초는 고려의 왕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몽골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여겨 반대하면서 진도와 탐라(제주)로 옮겨 다니며 저항했습니다.

마무리 학습

» 몽골의 침입

- 몽골의 1차 침입 : 몽골은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 고려의 도읍지 변경 : 몽골의 1차 침입 후,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 오랜 전쟁 과정에서의 피해 :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어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려의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황룡사 9층 목탑과 초조대장경 등의 문화재가 사라졌다.

정리!

» 개경 복귀와 삼별초의 항쟁

- 개경으로의 복귀 : 고려 왕과 일부 신하가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 삼별초의 항쟁 : 삼별초는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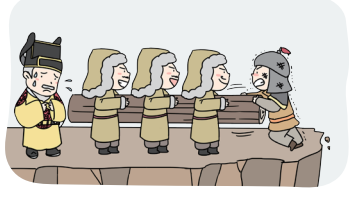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1) 통일을 이룬 몽골은 주변 나라에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 ( )

(2) 몽골은 고려의 강동 6주를 빼앗기 위해 1차로 침입하였다. ( )

(3)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의 침입 때 불타 버렸다. ( )

2 ㉮~㉰를 일어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 )



㉮ 삼별초의 저항

㉯ 왕과 일부 신하의 개경 복귀

㉰ 강화도로 도읍 변경

3 다음 깨비의 설명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 고쳐 쓰세요.

고려가 몽골과 싸우면서 강화도에 머물렀던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대. 일단 ㉠ 강화도는 면적이 넓은 편이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머무르기 좋았어. 그리고 ㉡ 강화도는 육지와 아주 멀어. ㉢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물살은 아주 거세지. 그러니 몽골이 바닷길로 오기는 어려웠을 거야. 게다가 ㉣ 몽골은 원래 바다에서 전투하는 것에 약했다고 해. 그러니 고려가 강화도를 근거지로 몽골과 싸운 것은 좋은 선택이었지.

몽골의 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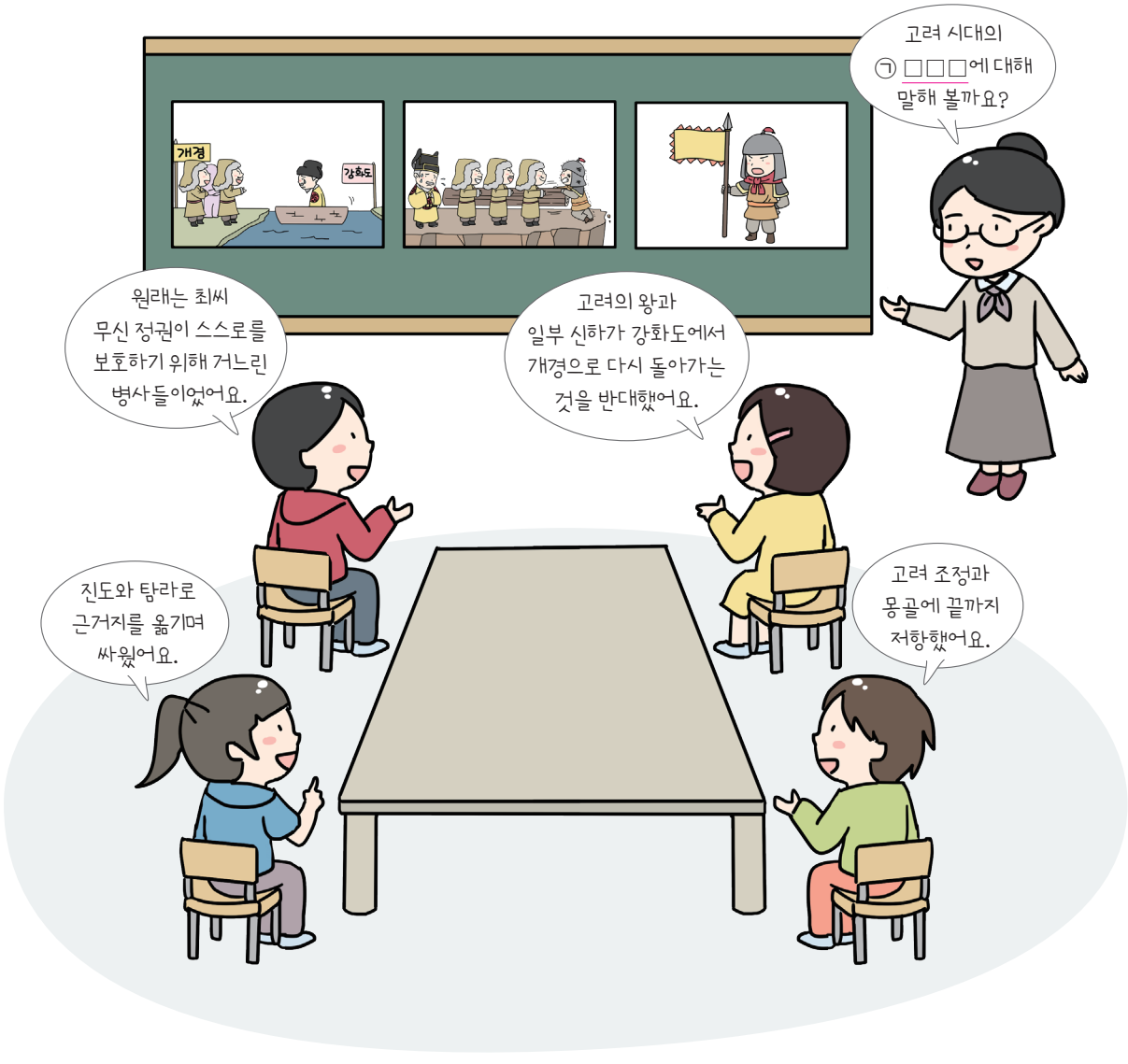
10

월 일

해 보기

★ 바른 답 확인하기 12쪽

다음 그림의 ㉠에 들어갈 말을 초성을 참고하여 쓰세요.



ㅅ ㅂ ㅊ 삼별초

탐구력

몽골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볼까요?

통일을 이룬 *몽골은 고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했어요.

*몽골 : 북쪽의 유목 민족으로 칭기즈 칸이 부족을 통일한 후 세력이 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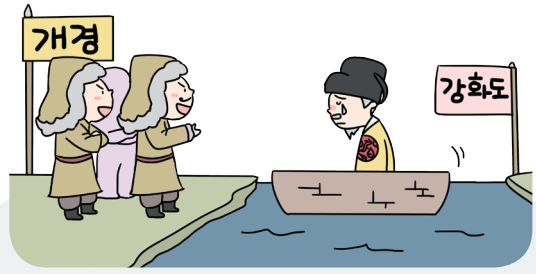
고려는 귀주성, 처인성, 충주성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어요. 군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싸운 덕분이에요.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1차 침입이 시작됐어요. 고려는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에 맞섰어요.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맞서려고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육지와 가깝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옮겨 올 수 있었고 세금이나 각종 물건을 옮겨 오기에도 좋았습니다. 또 육지와 강화도 사이의 물살은 무척 빠르고 갯벌도 넓어서 적군이 침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바다에서 먼 곳에서 발전한 나라여서 배를 만드는 일이나 바다에서 싸우는 일에 약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문화재도 이때 불타 버렸어요.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여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실패했어요.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았지만,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어요.

삼별초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느린 사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훗날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군대로 편성되어 마지막까지 몽골과 싸웠습니다. 삼별초는 고려의 왕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몽골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여겨 반대하면서 진도와 탐라(제주)로 옮겨 다니며 저항했습니다.

마무리 학습

★ 바른 답 확인하기 12쪽

정답 확인

» 몽골의 침입

- 몽골의 1차 침입 : 몽골은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 고려의 도읍지 변경 : 몽골의 1차 침입 후,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 오랜 전쟁 과정에서의 피해 :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어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려의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황룡사 9층 목탑과 초조대장경 등의 문화재가 사라졌다.

정리!

» 개경 복귀와 삼별초의 항쟁

- 개경으로의 복귀 : 고려 왕과 일부 신하가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 삼별초의 항쟁 : 삼별초는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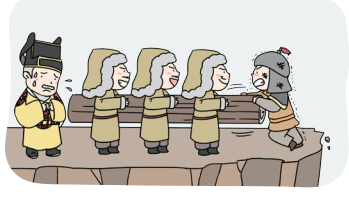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1) 통일을 이룬 몽골은 주변 나라에 물자를 많이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 (○)

(2) 몽골은 고려의 강동 6주를 빼앗기 위해 1차로 침입하였다. (×)

(3)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의 침입 때 불타 버렸다. (○)

2 ㉮~㉰를 일어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삼별초의 저항

㉯ 왕과 일부 신하의 개경 복귀

㉰ 강화도로 도읍 변경

3 다음 깨비의 설명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 고쳐 쓰세요.

고려가 몽골과 싸우면서 강화도에 머물렀던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대. 일단 ㉠ 강화도는 면적이 넓은 편이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머무르기 좋았어. 그리고 ㉡ 강화도는 육지와 아주 멀어. ㉢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물살은 아주 거세지. 그러니 몽골이 바닷길로 오기는 어려웠을 거야. 게다가 ㉣ 몽골은 원래 바다에서 전투하는 것에 약했다고 해. 그러니 고려가 강화도를 근거지로 몽골과 싸운 것은 좋은 선택이었지.

예시답안 ㉡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워.